

2016년 4월 22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.21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6. 4. 21. (목)	담당부서	기술규제정책과
담당과장	김남정 과장 (043-870-5520)	담당자	임완빈 연구관(043-870-5522) 이보하 연구사(043-870-5521)

2015년 WTO 무역기술장벽(TBT) 통보 동향 및 대응 성과

- 국가기술표준원, 「2015년 무역기술장벽(TBT) 보고서」 발간·배포 -

□ 우리 수출기업들이 전세계 기술규제의 흐름을 알아보고 쉽게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TBT 보고서가 발간되었다.(금년이 제4차)

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이하 국표원)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(WTO) TBT 통보 동향과 주요 사례를 담은 「2015년 무역기술장벽(TBT) 보고서」를 발간하여 중소 수출기업에 배포한다고 밝혔다.(약 5천부 예정)

□ WTO 사무국에 따르면 2015년에는 TBT 통보문이 73개국에서 총 1,989건이 발행^{*}되었고, 미국이 283건으로 가장 많고, 에콰도르(126), 브라질(119), 중국(111) 순이며, 우리나라는 80건^{**}을 통보하여 7위로 나타났다.

* 통보문 종류(건): 신규(1,442), 개정(24), 추가·정정(523)

** 최근 3년 전체/우리나라 통보(건): ('13) 2,142/49 → ('14) 2,239/85 → ('15) 1,989/80

- 특히, 총 1,989건 중 기술규제 정보 수집조차 쉽지 않은 개도국의 신규 규제가 1,124건으로 총 신규 건수(1,442)의 78%를 차지하고 있으며,

* 개도국 건/비중 : ('13년) 1,277건/80% → ('14년) 1,274건/83% → ('15년) 1,124건/78%

- 분야별로는, 식품·의약품 분야가 717건(36%)으로 가장 활발^{*}하게 진행되었으며 전기전자(261, 13%), 화학세라믹(216, 11%) 분야가 뒤를 이었고,

* 식의약품(717건), 전기전자(261), 화학세라믹(216), 생활용품(183), 농수산물(138), 교통안전(119), 기계(108), 에너지(63), 소재나노(57), 건설(46) 등

** 우리나라(80건): 식의약품(43), 생활용품(10), 정보디지털(8), 전기전자(7) 등

- 목적별로는, 건강과안전 1,027건(52%), 소비자보호 343건(17%) 순으로, 각 회원국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인식^{*}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.

* 최근 3년간 건강과 안전 규제(건) : ('13) 978/46% → ('14) 971/43% → ('15) 1,027/52%

** 우리나라(80건): 건강과 안전(49), 소비자보호(6), 동물보호(4), 품질(2) 등

□ 한편, 세계 각국은 FTA 확대 등으로 관세장벽이 낮아지자 기술장벽(TBT)과 같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을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틀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
-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(STC, Specific Trade Concerns)의 경우, 28개국에 86건(신규 37건)이 제기되어 증가 추세가 지속^{*}되고 있으며,

* STC 제기건수 : ('13년) 73건 → ('14년) 85건 → ('15년) 86건

- 우리나라는 중국, 인도, 스웨덴 등에 8건(신규 5건)의 STC를 제기하였고 미국, 캐나다 등으로부터 2건(신규 1건)을 제기 받았다.

- '15년 신규 STC(37건)는 중국, EU, 러시아 순으로 다수 제기를 받았으며, 중국, EU 등 7개 국가는 2건 이상을 제기 받았고,

* Top 5 : 중국(7건), EU(4건), 러시아(3건), 인도(3건), 인니·브라질·대만(2건)

- 특히, 신규 STC 중 중국, 동남아시아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WTO에 통보하지 않은 미통보 사례(신규)가 19건(51%)이나 제기^{*}되어 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.

* 미통보 건/비중 : ('13년) 14건/33% → ('14년) 13건/28% → ('15년) 19건/51%

(사례) 중국은 의약품·의료기기 등록비 기준을 WTO 통보없이 신설('15.4월)하여 수입의료기기에 대해 중국산 대비 2배의 수수료를 책정하여 수출기업 애로

□ 국표원은 우리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장벽(TBT)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,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(다자회의)는 물론,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양자회의를 통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.

-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중국 화장품표시(라벨) 규제 등 STC^{*}(8건)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일부는 성과(2건)를 거두고 지속 대응 중에 있다.

* 중국(①화장품라벨^{해결}, ②의료기기감독, ③리튬이온전지, ④의료기기등록비), 인도(⑤2차 전지, ⑥타이어), UAE(⑦에너지효율), 스웨덴(⑧유해물질 세금^{해결})

- 화장품표시(라벨)를 스티커 형태로 부착하는 덧붙이기(오버라벨링)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나, 중국만 이를 금지함은 불필요한 무역장벽임을 주장해 중국측이 해당 규정을 철회('15.5월)하였다.

- 스웨덴은 전자제품에 대해 화학물질 세금을 부과하는 규제를 시행('16.1월)할 예정이었으나, 현실적으로 대체물질 개발에 시간적 한계 등을 효과적으로 설득하여 스웨덴이 해당 규제를 철회('15.6월)하였다.

- 상기 특정무역현안(STC) 대응 이외에도, 칠레 에너지효율 표시(라벨) 규제 등 수출기업 애로에 대해 양자협의를 통해서도 큰 성과를(20건)를 거두었다.

* 미국·에콰도르(4건), 베트남·사우디·칠레·태국(2건), 노르웨이·사우디·스웨덴·중국(1건)

(사례) 칠레는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 신설로 TV시장의 60% 차지하는 우리기업 수출('14년 4,330억원) 타격예상 → 한국성적서 허용, 시행유예 합의('15.6월)

- 특히, 개도국 기술규제 및 긴급현안 등에 대해서는 현지 규제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한 수출기업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.

* '15년 태국, 브라질, 아르헨티나, 멕시코, 에콰도르, 남아공, UAE 7개국 규제당국과 즉석식품포장재 규제 등 14건의 애로에 대해 협의하여 12건의 애로를 해소

(사례) 에콰도르가 시행('15.8월) 예정이었던 '즉석식품포장재(레토르트 파우치)' 규제는 과도한 요구조건과 대응시간 부족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('14년, 약1천 만불) 타격예상 → 규제당국 방문 협의로 규제완화 및 시행유예 합의('15.8월)

- 한편, 최근 규제 신설이나 개정 사실을 WTO에 통보하지 않고 시행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, 이 같은 미통보 규제를 발굴하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.

* 미통보 규제 발굴/분석/대응(건) : ('14) 118/50/12 → ('15년) 195/120/19

(노르웨이) WTO 통보없이 유해 화학물질 규제를 '15.2월부터 시행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→ EU 시행('16.3월) 전까지는 면제신청을 통해 유예하기로 합의('15.6월)하여 기업의 대응 시간 확보

- 앞으로도, 국표원은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으로 수출기업, 협·단체 등과 공조하고, 현지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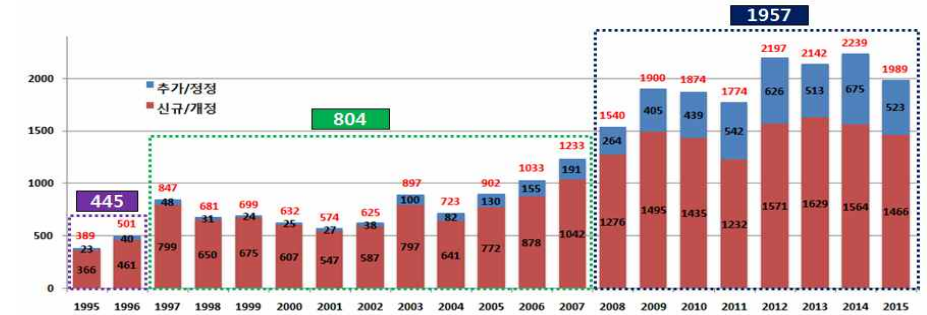
- ※ 붙임: 1. 2015년 WTO TBT 통보문 동향
2. 2015년 WTO TBT 분야별, 유형별 통보문 현황
3. 2015년 우리나라 제기·피제기 특정무역현안(STC) 현황
4. 2015년 무역기술장벽(TBT) 주요 대응 사례

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정책과 이보하 연구사(043-870-552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1 2015년 WTO TBT 통보문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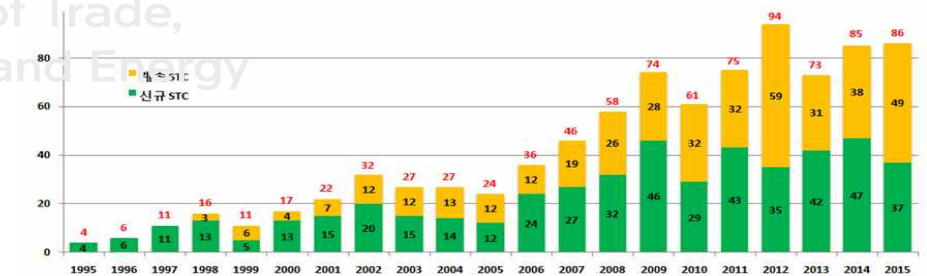
- (TBT 통보문) 총 73개국 1,989건 통보, '08년 이후 약 2,000건 지속 통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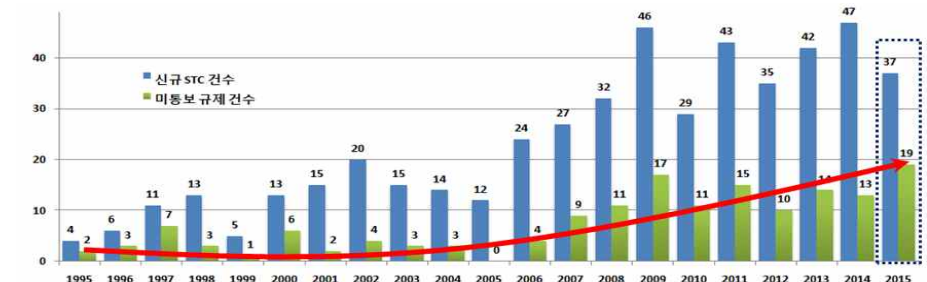
<TBT 통보문 종류>

- 신규 : 기술규정 제·개정 최초로 기술규제(TBT)를 통보하는 경우
- 개정 : 최초 통보된 TBT 내용이 상당히 변경된 경우
- 추가 : 최초 TBT 통보문에 대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경우
- 정정 : 최초 통보된 TBT 통보문에 경미한 오류가 있어 정정하는 경우

- (STC) 총 86건(신규 37, 계속 49)이 제기되었으며, 최근 3년간 증가 추세



- 신규로 제기된 특정무역현안(STC) 37건 중 WTO에 통보되지 않은 규제는 19건으로 51%를 차지



첨부 2

2015년 WTO TBT 분야별, 유형별 통보문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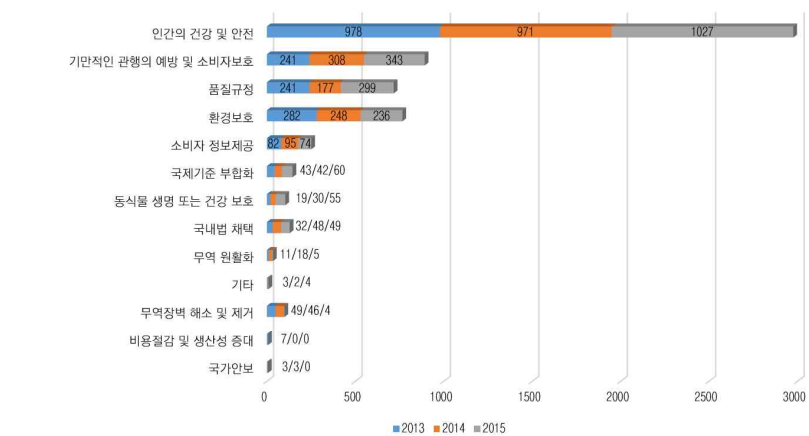
○ (분야별) 식품·의약품 분야의 통보가 717건(36%)으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전기전자(261건, 13%), 화학세라믹(216건, 11%) 분야 순

<2013~2015년 분야별 TBT 통보 건수>

[단위: 건수]

대분류	2013년	2014년	2015년	
	통보건수	통보건수	통보건수	비율(%)
식의약품	709	826	717	36
전기전자	409	383	261	13
화학세라믹	254	202	216	11
생활용품	149	181	183	9
농수산물	67	95	138	7
교통/안전	174	133	119	6
기계	69	107	108	5
에너지	64	70	63	3
소재·나노	60	87	57	3
건설	75	69	46	2
기타	54	53	45	2
정보·디지털	41	24	35	2
바이오·환경	17	9	1	-
합 계	2,142	2,239	1,989	-

○ (목적별) 건강과 안전 1,027건(52%), 소비자보호 343건(17%), 품질 299건 (15%) 순이며, 각 회원국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인식*이 높아지는 추세



첨부 3

2015년 우리나라 제기·피제기 특정무역현안(STC) 현황

○ 2015년 우리나라가 제기한 특정무역현안은 4개국 8건(신규 5건)

번 호	대상국가	특정무역현안(STC)	소관부처
1	중 국	화장품 라벨링 규제 (신규)	식약처
2		의료기기 등록비 기준 (신규)	
3		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 (신규)	
4	인도	리튬이온전지 안전 규제	국표원
5		2차 전지 안전 규제	
6	인도	타이어 안전 인증 규제	
7	스웨덴	전자제품 유해물질 세금 부과 (신규)	
8	아랍에미리트	전자기기 에너지효율 라벨링 (신규)	

○ 2015년 우리나라가 제기받은 특정무역현안은 4개국 2건(신규1건)

번 호	제기국가	특정무역현안(STC)	소관부처
1	미국, 캐나다	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안 (신규)	산림청
2	미국, 일본, 호주	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	환경부

【 TBT 대응사례 】

 에콰도르 레토르트 파우치 품질인증 규제

- **(개요)** 에콰도르는 식품 포장용기인 레토르트 파우치의 품질요건(재료, 라미네이트, 크기, 봉합, 포장, 핸들링 및 라벨링 등)에 대한 강제규제를 '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WTO에 통보('14.10월)
* 대상제품 對에콰도르 수출액 : 9.8백만불('14년)
- **(애로 사항)** 테스트 주체 및 적용범위가 불명확 하고 층별 라미네이트에 대한 두께 범위가 제한적이며, 내부과열 압력조건이 가혹하였고, 업체들이 대응하는 데 시간 부족
- **(대응 활동)** WTO TBT 위원회에서 양자회의 개최('15.6월), KOTRA 현지무역관을 통해 대응하며 라미네이트 두께 범위 확대, 압력조건 완화 및 시행유예 요청
- **(대응 결과)** 규제 시행유예 및 라미네이트 두께 범위 확대, 압력조건 완화 등 우리측 의견을 대부분 수용('15.8월)

 베트남 자동차 타이어 인증 규제

- **(개요)** 베트남은 신규 자동차 및 타이어에 대한 강제규제를 시행한다고 WTO에 통보('15.5월)
* 대상제품 對베트남 수출액 : 5.3억불('14년)
- **(애로 사항)** 신규에 대한 정의 및 규제 대상 타이어의 범위가 불명확 하고 타이어 인증 취득시 유럽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는 문구가 모호
- **(대응 활동)** WTO 위원회시 양자회의 개최('15. 11월)를 통해 유럽 E-Mark 성적서 또는 KOLAS 성적서 인정을 요청
- **(대응 결과)** 기업이 취득한 유럽 E-Mark 및 그 근거(성적서)를 인정하여 기업애로사항 해결('15.11월)

【 TBT 대응사례 】

 스웨덴 전자제품 난연제 세금규제

- **(개요)** 스웨덴은 인, 염소, 브롬계 난연제가 함유된 전자제품에 대한 일정 세금 부과 및 세금 감면 요건에 관한 강제규제를 '1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관보를 통해 발표함(미통보 규제)
* 대상제품 對스웨덴 수출액 : 1.7억불('14년)
- **(애로 사항)** 규제 대상 난연제 대체물질 개발에 대한 대응 시간 부족 및 난연제 사용에 따른 세금 부과로 인한 기업의 비용 상승
- **(대응 활동)** WTO TBT 위원회에서 양자회의 개최('15.6월)를 통해 대체제 개발에 대한 어려움 및 세금 부담의 부당함을 설명하며 동 규제의 철회 또는 시행유예를 요청
- **(대응 결과)** 동 규제에 대한 철폐로 기업애로 해소('15.6월)

 칠레 TV 에너지효율 표시 규제

- **(개요)** 칠레는 텔레비전 제품 관련 동작모드(on mode) 소비전력에 대한 에너지 효율기준 충족 및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고 WTO 통보('13.10월)
* 대상제품 對칠레 수출액 : 4,330억원('14년)
- **(애로 사항)** 동 규정에 따라 텔레비전 에너지효율 시험을 실시하여 칠레 규제당국(SEC)에 인증 취득을 신청하였으나, SEC에서 제조자가 제시한 출하상태의 기본 영상모드의 측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수출준비에 애로 발생
- **(대응 활동)** WTO 위원회시 양자회의 개최('15.6월)를 통해 출하상태의 기본 영상모드 값 수용을 요청
- **(대응 결과)** 칠레측은 규제당국과 시험소와 협의하여 우리측 의견을 수용하기로 하여 기업애로사항 해결('15.6월)

【 TBT 대응사례 】

노르웨이 가전제품 유해물질 제한 규제

- **(개요)** 노르웨이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사용되는 브롬계 내연재(BFR)인 HBCDD(Hexabromocyclododecane)의 사용을 '15년 2월부터 규제 (제품중량의 0.1% 이상 사용금지)함을 관보를 통해 발표(미통보 규제)
* 대상제품 對노르웨이 수출액 : 47억불('14년)
- **(애로 사항)** 함량 적용 기준과 규제 적용대상이 불명확하고 규제 대응에 준비시간 부족으로 수출 애로 발생
- **(대응 활동)** WTO TBT 위원회에서 양자회의 개최('15.3월, 6월)를 통해 규제 모호성에 대한 명확화 및 수출준비를 위한 시행유예를 요청
- **(대응 결과)** HBCDD 함유 제품에 대해 EU 규제 발효('16.3월) 전까지 면제신청을 통해 수출이 가능토록 협의하여 우리기업의 규제 대응 시간 확보('15.6월)

중국 화장품 오버 라벨링 금지 규제

- **(개요)** 중국은 오버라벨링을 금지하는 새로운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을 WTO 통보('14.12월)
* 대상제품 對중국 수출액 : 18백만불('14년)
- **(애로 사항)** 오버라벨링 금지로 중국 시장만을 위한 별도포장의 과정이 추가되므로, 이로 인해 제품 수출 지연 및 비용 부담의 애로 발생
- **(대응 활동)** WTO 위원회 양자회의 개최('15.3월)를 통해 오버라벨링 금지 철회 등 우리 업계의 우려 제기
- **(대응 결과)** 중국측의 오버라벨링 금지조항 삭제로 애로 해결('15.5월)

【 TBT 대응사례 】

중국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규제

- **(개요)** 중국은 신규 허가되는 의약품·의료기기의 등록비 기준 변경안을 발표('15.4월)하며 '15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(미통보 규제)
* 대상제품 對중국 수출액 : 1.4억불('14년)
- **(애로 사항)** 수입되는 3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부과되는 수수료가 중국산의 2배 수준으로 매우 과도하여 비용부담의 애로 발생
- **(대응 활동)** WTO TBT 위원회에서 양자회의 개최('15.6월) 및 STC ('15.11월)제기를 통해 동 규제가 과도하며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료기기 등록비에서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리하여 줄 것을 요청
- **(대응 현황)** 캐나다, 호주 등과 공조하여 STC 제기 등 중국의 규제 개선 요구 중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